

열왕기상 2. '다윗'의 죽음과 '솔로몬'의 왕권확립 (왕상 1:1-46)

들어가기

열왕기상 2 장은 '다윗'이 죽기 전 아들 '솔로몬'에게 남긴 유언과 함께 '다윗'이 죽은 후 '아도니아', '요압', '시므이', 제사장 '아비아달'을 제거하고 새 나라의 왕권을 확립한 '솔로몬'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.

1. '다윗'이 죽기 전 '솔로몬'에게 남긴 유언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? (1-9 절)

1) 유언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하여 행할 일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

- 우선 '다윗'은 아버지로서 '솔로몬'에게 '힘써 대장부'가 되라고 격려함! (2 절)
 - '솔로몬'이 왕위에 오른 나이는 대략 20 세 (역대상 29:1)
 - 따라서 어린 나이로 왕이 되었기에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한 아버지 '다윗'은 그에게 대장부처럼 용기 있게 행하라고 격려하였을 것!

①. 하나님께 대하여 행할 일? (3-4 절)

-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명함!
- 특별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모든 법과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것을 명함!
- >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**형통**하게 될 것!!
- 또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게 행할 것!
- > 그리하면 이스라엘 **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!!**

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것 한가지는 '다윗'은 단순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라! 말하지 않고, 하나님의 '법률'과 '계명'과 '율례'와 '증거'와 '모세'의 '율법' 등으로 세분화 시키며 순종할 것을 명령했다는 것!

-> 이는 곧 단순히 '솔로몬'의 통치 사역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유언을 남겼다는 것!!

➤ 이런 '다윗'의 유언은 결코 '솔로몬'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지키고 따라야 할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!

②. 사람들에게 대하여 행할 일?

- 조심해야 할 사람 또는 제거해야 할 사람과 은혜를 베풀어야 할 사람 두 부류로 나뉨

● 조심하거나 제거할 사람

- 첫째: '스루야'의 아들 '요압' -> 현 군대 장관
 - > 그는 '다윗'의 명령에 늘 불순종했던 자: 특히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'넬'의 아들 '아브넬'과 '예델'의 아들 '아마사'를 죽임!
 - >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할 것! 곧 제거대상!!

- 둘째: 베냐민 사람 ‘게라’의 아들 ‘시므이’
 - > 그는 ‘다윗’이 ‘압살롬’의 반역을 피해 마하나임으로 도망갈 때 ‘다윗’을 저주한 사람!
 - > 그러나 ‘다윗’은 돌아올 때 자신은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하였음!
 - > 그러나 결코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고 지시! -> 곧 조심히 지켜보라고 지시!

-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 -> 길르앗 ‘바르실래’의 아들들!
 - 저들은 ‘다윗’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, ‘다윗’을 찾아와 은혜를 베푼 사람들!
 - > 그러므로 저들을 ‘솔로몬’의 상에서 먹는 자들 중에 참여시키라고 부탁함!

- 곧 ‘다윗’은 죽기 전 ‘솔로몬’에게 악을 행한 자들은 주의시키고, 은혜를 베풀어 준 자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것!
 - > 참고로 이후 솔로몬은 잠언 27 장 10 절에서 ‘네 친구와 네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자 말라’는 교훈을 남김! -> 곧 저들을 잘 보살피며 은혜를 베풀었을 것!!

2. 드디어 ‘다윗’의 시대가 끝나고 ‘솔로몬’의 시대가 열렸습니다. (10-12 절)

- 1) ‘다윗’은 30 세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7 년간 유다를 통치했고, 이후 예루살렘에서 33 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총 40 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.
- 2) 주목 -> 이후 ‘솔로몬’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면서, 그 나라는 **심히!** 견고해졌다는 것!!
 - > ‘다윗’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‘솔로몬’을 통해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것!

3. ‘솔로몬’의 과거 청산 (13-46 절)

-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두 가지!
 - ①. 본문에 등장하는 ‘솔로몬’에게 처형당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‘솔로몬’에게 위험한 대상들이었으나, 결코 ‘솔로몬’이 먼저 저들을 징계하거나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!
 - ②. 곧 저들은 다 스스로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빌미를 먼저 ‘솔로몬’에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빨리 죽음을 맞이했던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는 것!

3-1. 솔로몬의 과거 청산 1. ‘아도니아’ -> 참 어리석고 경솔한 사람! (13-25 절)

- 1) ‘아도니아’는 ‘솔로몬’의 어머니인 ‘밧세바’를 찾아가 수넴 여인 ‘아비삭’을 자신의 아내로 맞을 수 있도록 ‘솔로몬’에게 청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. (13-17 절)
 - 우선 수넴 여인 ‘아비삭’은 누구인가?
 - 곧 전왕의 여인을 탐하는 것은 반역!!
- 2) 그럼에도 불구하고 ‘아도니아’가 ‘아비삭’을 달라고 ‘밧세바’에게 당당히 부탁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?

- 15 절을 주목!

‘…,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**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,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**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’

- 곧 이스라엘의 왕권이 원래는 자신의 것이었는데, 자신이 ‘솔로몬’에게 양보했으므로 그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‘아비삭’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!!

3) ‘밧세바’는 이런 ‘아도니아’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했는가? (18-21 절)

- 그대로 받아들여 ‘솔로몬’에게 ‘아비삭’을 내어 줄 것을 청했다는 것!
- 특별히 20 절을 주목! -> 이 일을 대하는 ‘밧세바’의 자세?
 ‘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**한 가지 작은 일로**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…,’

4) 그러나 ‘솔로몬’은 결코 ‘아도니아’의 요구를 작은 일로 보지 않았습니다! (22-25 절)

- ①. ‘솔로몬’은 ‘밧세바’가 ‘아도니아’의 청을 들어주라는 것은 자신의 왕권을 ‘아도니아’에게 넘겨주라는 것이고, 또한 그와 함께 반역을 일으킨 제사장 ‘아비아달’과 ‘스루야’의 아들 ‘요압’을 다 구원하여 주라는 말과 같은 정말 큰 일이라고 생각하였음!!

-> ‘솔로몬’이 이렇게 판단한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선왕의 여인(첩)을 아내로 삼는 것으로 이전 왕위를 인정받았다거나 획득했다고 정치적으로 주장하던 사례가 많았기 때문!!
 (예: ‘다윗’=‘사울’의 첩들을 취함, ‘압살롬’=‘다윗’의 10 후궁들을 취함. etc.)

-> 참고로 어떤 학자들은 당시 ‘아도니아’가 ‘아비삭’을 아내로 얻으려고 한 것은 훗날을 대비한 간교한 술책이었다고 해석하기도 함!

-> 또한 이런 ‘아도니아’의 요구는 어린 ‘솔로몬’의 권위를 너무나 우습게 본 거만한 행위!

- ②. 따라서 ‘솔로몬’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, 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‘아도니아’를 즉시 처형하라고 명령하였음!!

-> 24 절, ‘..,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,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..,’

-> 곧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를 든든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반란의 싹은 미리 잘라버리고 왕권을 강화하겠다고 결정했다는 것!

- ③. 결국 ‘아도니아’는 ‘여호야다’의 아들 ‘브나야’에 의해 불행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.

3-2. 솔로몬의 과거 청산 2. 제사장 ‘아비아달’ (26-27 절)

- 1) ‘아도니아’를 처형한 ‘솔로몬’은 제사장 ‘아비아달’을 제사장 직에서 파면시키고, 예루살렘에서 추방시켰습니다. (26-27 절)

- ①. 이유? -> ‘아도니아’의 반란에 그가 크게 가담했기 때문!
- ②. 그러나 ‘다윗’ 시대에 오벧에돔에 있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그가 그 궤를 메었고, 또 ‘다윗’이 ‘사울’과 ‘압살롬’으로 인해 고난 받을 때 함께 있었다는 공로를 인정해서 처형시키진 않음!!
- ③. 대신 그의 제사장 직분을 파하고, 고향 땅 ‘아나돗’으로 추방시킴!

➤ 비록 ‘아비아달’은 자신의 목숨은 건졌으나 제사장으로써 제사장 직을 파면 당한 것으로 종교인으로써의 그의 생명력은 끝난 것임!!

2)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‘엘리’ 제사장의 집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것이라 증언함! (27 절)

- 삼상 2:27-36 절: ‘엘리’ 제사장의 가문에서는 제사장이 없을 것이라 예언!!
 - ‘아비아달’은 ‘엘리’가 속한 ‘이다말’ 자손 중에 마지막 제사장이었음!
 - 이후부터 ‘엘르아살’의 자손에서만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이 승계됨!! (역대상 6:1-8)

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축복이든 저주든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 모두 기억하며, 항상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!

3-3. 솔로몬의 과거 청산 3. 군대장관 ‘요압’ (28-35 절)

1) ‘아도니아’의 죽음과 제사장 ‘아비아달’의 추방 소식을 들은 ‘요압’은 즉시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가 제단 뿔을 잡고 있었습니다. (28 절)

- 그럼 그가 제단 뿔을 잡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?

2) 이 소식을 전해 들은 ‘솔로몬’은 ‘브나야’를 보내며 그를 죽이라 명하였습니다. (29-30 절)

- ①. 이에 ‘브나야’는 ‘요압’에게 먼저 성막에서 나올 것을 명함!
- ②. 그러나 ‘요압’은 성막 안에서 죽겠다며 거절함!!
- ③. 이에 ‘브나야’는 그의 뜻을 다시 ‘솔로몬’에게 전함!!

3) 그러자 ‘솔로몬’은 ‘요압’은 화평 중에 두 명이나 살해한 살인자요, ‘다윗’ 왕께 불순종한 죄인이기에 그의 죽음은 마땅한 것이고, 결코 그의 피가 ‘브나야’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와 그 자손에게 돌아갈 것이라 선언한 후, ‘브나야’에게 즉시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뜻대로 ‘요압’을 죽이고, 그 시체를 그의 집에 묻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. (31-34 절)

- ‘요압’이 제단 뿔을 잡고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끝내 죽임을 당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?

➤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인지? 깊이 묵상해야만 할 것!!

- 4) ‘솔로몬’은 ‘요압’과 ‘아비아달’의 빈자리를 ‘브나야’와 제사장 ‘사독’이 대신 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. (35 절)

3-4. 솔로몬의 과거 청산 4. 베냐민 사람 ‘시므이’ (36-46 절)

- 1) 그 후 ‘솔로몬’은 ‘시므이’를 불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살라고 명령하였습니다. (36-38 절)
- ‘솔로몬’은 만약 ‘시므이’가 이 명령을 어기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 경고하였음!
 - > 아마도 ‘다윗’의 유언대로 그를 경계하고 주의하고자 한 듯!
 - 이때 ‘시므이’의 반응은?
 - > 이 말을 좋게 여기며 말씀대로 지키겠다고 약속함!
 - > 그 후로 그는 3년간 평안하게 예루살렘에서 살았음!
- 2) 그런데 어느 날 ‘시므이’가 거느리던 종들 중 두명이 가드로 도망가자 그는 그 두 종을 잡아오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. (39-40 절)
- 곧 3년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히 살게 되자 그 스스로가 ‘솔로몬’과 한 약속을 가볍게 생각했거나 잊어버렸다는 것!
 - 이는 곧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, 자신의 잘못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!
- 3) 그러나 ‘솔로몬’은 결코 그와 한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습니다. (41-46 절)
- ‘시므이’가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‘솔로몬’은 즉시 ‘시므이’를 잡아와 죄를 물었음!
 - 이때 ‘솔로몬’은 자신이 ‘시므이’를 처형하는 것은 결코 사사로운 복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약속한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함이라 선포하였음!
 - > 그러면서 ‘솔로몬’은 이전에 ‘시므이’가 ‘다윗’에게 행했던 악행을 다시 기억하도록 함!!
 - > 곧 ‘시므이’는 지난날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그 약속을 늘 지키고자 노력하며 신중하게 살았어야만 했다는 것!
- 4) ‘솔로몬’은 ‘시므이’의 죽음은 이런 그의 잘못 때문임을 분명하게 지적한 후에 자신의 집과 이스라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 선포하였습니다.
- 46 절을 주목! -> ‘... ,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’
 - 곧 ‘시므이’가 처형당한 것은 결코 인간적인 복수 때문이 아니라, 하나님의 공의가 ‘솔로몬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만 할 것!

4. 오늘 내용을 보면서 새롭게 깨달거나 결단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?